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62호 [무계 제 25405호] 주제 105 (2016)년 9월 1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에 펼쳐진 희한한 과일대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속에 사회주의선경,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고산과수가 생겨 처음 보는 희한한 과일대풍이 들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륙군상장 서홍찬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 고산군위원회 위원장 함종철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농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백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자기들의 일머에 모신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새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을 세상에 들도 없는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은 물론 농장의 모든 세대들에 문화용품들도 보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판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618건설돌격대의 건밀한 협동밑에 농장을 사회주의무궁도원으로 더 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신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농부들이 이룩한 희한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과일대풍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지마다에 함스러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마치도 사과알들에 빨간 물감을 들인것만 같다고, 철렁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고산과수의 풍경은 보고도 보아도 싫지 않으며 볼수록 기쁨과 환희를 더해준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이런 풍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올해 수확정보의 사과밭에서 정보당 50여의 사과를 수확하게 된다는데 대단하다고, 사과가 땅이 꺼지도록 정말 풍족해도 많이 달렸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고산과수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품종의 사과는 하나와 같이 색깔이 붉고 맛이 달다고 하시면서 올해 수확한 사과를 인민들에게 보내주면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우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과일생산목표를 기어이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과일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훨씬 돌파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과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부터 과일이 무르익은 오늘까지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농장종업원들이 온 한해 동안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창설된 고산과수농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종합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농장의 전망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

각할수 없다고, 우리는 철렁아래 사과바다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일생산에 매바다 늘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당의 령도에 편철된 철렁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년년 과일과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과일보관고를 돌아보시고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확능력의 현대적인 과일보관고를 출몰을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는 세계컬지의 청춘과원에 펼쳐진 희한한 과일대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튼튼기계와 지게차 등을 보아주시면서 농장에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를 더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지를 들고나가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원천히 해결할데 대한 문제, 애 분장들마다에 과학

기술보급실을 꾸려놓으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도록 돼지독장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문제, 방울식관수체계를 완비하며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등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시가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들과 하늘밖에 차분치는 과일향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농장 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낀 고귀한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고산과수가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이 농장은 당정책을 어엿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 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달중양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검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이룩된 과일대풍소식이 전례치 못한 입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피해 복구전선에서 전화위부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뚱하도록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

할만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과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무풍도원으로 전변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위문전문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지역에서 2016년 9월 초 여러날동안 내린 무더기비와 폭풍으로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외부와의 련계가 두절되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쓴 슬픔속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사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조선로동당 정부와 인민 그리고 이번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의 뜻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도가 있고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서로 돕고 위하는 전통을 높이 발휘하여 조성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위라 쩌
2016년 9월 15일 비엔리안

《조선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 《조선로동당 전화위부의 기적창조를 호소》, 《전국이 피해복구사업에 펼쳐나서는것으로 화답》

각국의 출판보도물들 광범히 보도

세계의 이목이 전화위부의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으로 집중되고있다. 온 행성을 휘젓는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중대조치가 취해지고 현이 모든 힘을 북부지역의 피해복구사업에 부른 우리 당의 호소따라 전제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펼쳐나선데 대해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파르스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북면 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인적, 물적, 기술적장비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완공을 눈앞에 둔 리명거미건설까지도 중지하여 여기에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라스판에 큰 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조선은 한말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다 훌륭한 지역으로 일신시켰다.

러시아의 인데르호프스톤, 스푸트니크 방송, 인리네트잡지 《명취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구바 인리네트홈페이지, 인리네트홈페이지 《블라즈바야 보리바》 등 출판보도물들도 우리 같은 소식을 집중 보도하였다.

민주공화국제사상인구 전국위원회 인리네트홈페이지는 《조선 피해복구전투에 일제의 전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북부피해복구지원열정으로 무장부담을 감고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제일중대사로 여기는 조선 당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북부 피해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사랑의 화폭, 혼연일체의 인디아가 ND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북부지역에서 최악의 폭우로 인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해 전제 인민이 일떠나섰다. 조선로동당의 전투목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함북도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급리플을 마련해주고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군인전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피해지역으로 긴급 파견되고 국제군인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적극 헌신해나서고있다.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에에서는 건설자재, 설비들과 함께 급급되는 건설부대들을 긴급수송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나라의 인디아가이사회인, 지 뉴스TV방송을 비롯한 언론들도 우리의 피해복구전투 소식을 특별프로로 전하였다.
중국의 환구망과 신화통신, 라오스신문 《비엔리안 타임스》, 만마통신, 나이지리아의 AIT방송, 미국의 AP통신, 프랑스의 AFP통신과 도이칠란트산세연단 인터넷홈페이지도 《조선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 《조선로동당 전화위부의 기적창조를 호소》, 《전국이 피해복구사업에 펼쳐나서는것으로 화답》 등의 제목으로 위대한당의 호소따라 군민협동작전으로 피해복구전투에 한결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용사들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들의 자랑찬 위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나라의 힘은 중요한 목표는 나라의 전신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와 비공식 국제경기대회에 광범한 승리를 주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의 영예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가 되신 것은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체육계를 둘러보면 종류무제한 선수권을 여러 번 획득한 전직은 가지고 있어도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을 쟁취하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마친 체육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올림픽선수 2015년에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이번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것도 서로 다른 동맹국 경기에서 편이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세계를 놀래켰다.

그 비결은 올림픽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높은 육체기술적능력과 높은 정신적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명적전투기를 애호하는 자들, 감독들과 선수들은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75kg급경기에서 판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세계체조강자의 변함없는 실력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을 쟁취한 리세광선수는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수필: 우리의 당의 참모습

행진만 끊임없이 달려오며 우리 당의 참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세계체조강자의 변함없는 실력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을 쟁취한 리세광선수는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두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차넘치는 친혈육의 정

합동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차넘치는 친혈육의 정

새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의 자랑인 천연기념물대중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호어라 합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들어와 수습제 대상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지정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의 자랑인 천연기념물대중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호어라 합니다.》

9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9월 하순에 우리 나라에는 주로 동아시아에 특색이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핵의 발견과 핵무기의 출현

핵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변혁시킨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핵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력 원자로와 핵무기라는 것이 있다.

핵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변혁시킨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핵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원자력 원자로와 핵무기라는 것이 있다.

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생태환경에 사소한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 확인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 확인

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생태환경에 사소한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 확인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 확인

연안온천

연안온천은 황해남도 배천군 금강리에 위치하고 있다.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 확인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가을철에 들어서는 가을걷이

